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4.24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##### ○ 프랑스, 코로나19 여파로 테러범 130명 조기 석방

- 4.20 프랑스 주간지 「La Point」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우려로 지하디스트 130명을 조기석방했으며, 이로 인해 로망쉬르 이제르 흉기난동\*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

\* 4. 4 수단 난민 출신 용의자(33세)에 의한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2명 사망

##### ○ 폴란드, 유럽에서 테러공격 계획한 레바논 남성 체포

- 4.20 폴란드 경찰은 서유럽 국가에서 테러 공격을 위해 △ISIS와 소통, △테러리스트들에게 재정적 지원, △유럽내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혐의로 레바논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

\* 한편, 4.15 독일내 미군시설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ISIS 조직원 4명 검거

#### 미주

##### ○ 美 FBI, “미국내 테러 위협 증가 중” 언급

- 「레이」 美 FBI 국장은 오클라호마테러\* 25주기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“오늘날 테러는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알카에다 등 외국 테러단체와 미국내 테러·백인우월주의단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, 기술 발전은 테러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”고 우려

\* '95.4.19 09:05경 美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정부기관 건물 인근에서 차량에 폭탄이 폭발, 168명이 사망하고 600여명 부상

##### ○ 美,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'IBK기업은행'에 1천억원 벌금 부과

- 4.20 美 당국은 IBK기업은행이 무역회사의 위장거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금세탁을 통해 이란으로 10억달러(약 1조2200억원)를 송금한 혐의로 8,600만달러(약 1,049억원)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

\*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·촉진하는 제재대상의 은행 시스템 활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

## 아시아

- 파키스탄, 잠무-카슈미르지역 테러단체 신설 지원
  - 4.16 인도 현지언론은 인도 정보기관을 인용해 “파키스탄 정보기관 (ISI)이 라쉬카르-에-타이바(LeT)의 도움으로 잠무-카슈미르에 2개의 새로운 테러단체를 조직하였으며, 이들의 목적은 무기·탄약 축적 및 정치인·경찰 살해” 라고 보도
- 아산정책연구원, 對중동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
  - 4.20 아산정책연구원은 「한국인의 對중동 인식과 정책적 함의」 보고서를 통해 △우리 국민은 중동 지역의 중요성에는 대부분 (80.3%) 공감하지만, △중동 출신 이민자에게는 다수(70.9%)가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발표
    - \* 중동 출신 이민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및 근거없는 이슬람 혐오정서가 더해져 증폭된 것이라고 분석

## 아프리카

- 차드, 교도소 수감 보코하람 조직원 44명 사망
  - AFP통신은 아프리카 차드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조직원 44명이 4.16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, 부검결과 일부 시신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당국이 집단자살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
    - \* 차드 법무장관은 “숨진 수감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없었다”고 언급
- 부르키나파소 軍, 대테러작전 미명하 이슬람 우호 유목민 31명 처형
  - 4.20 국제인권감시단체(HRW)는 부르키나파소 북부에서 대테러작전 중인 보안군이 이슬람 과격단체를 제압하는데 어려움을 겪자, 이슬람 과격단체에 우호적인 풀라니 유목민 31명을 처형했다고 보도
    - \* HRW 사헬지역 국장은 부르키나파소 軍이 전쟁범죄의 잔악상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이슬람 과격단체에 가담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

아프가니스탄 카불, 정보기관 겨냥 폭탄테러

○ '16. 4. 19 아프가니스탄 카불 중심가에서 정보기관 등 국가 보안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와 총격전으로 30명이 사망하고, 320여명이 부상



- 경찰은 “무장괴한들이 국가안보국(NDS) 건물 앞에서 폭발물을 실은 트럭으로 폭탄테러를 감행한 뒤, 同 건물에 난입해 치안병력과 총격전을 벌였다”고 설명

○ 同 지역은 국방부·美대사관 등 여러 기관이 밀집한 곳으로, 총격전 과정에서 치안병력뿐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도 크게 발생

\* 美대사관·나토 아프간 주둔軍 본부는 피해가 없었다고 발표

- 「가니」 아프간 대통령은 “이런 비겁한 공격으로는 아프간軍의 테러대응 의지를 꺾을 수 없다”고 강조하면서 대테러 활동 지속 의지 표명

○ 한편, 탈레반 대변인 「무자히드」는 同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하면서 “자살폭탄 테러와 정부·외국軍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‘춘계 대공세’를 시작했다”고 발표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‘서구식 교육은 죄악’이라는 의미로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」가 조직  
\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3.7), 미국('13.11), UN('14.5)
- (핵심인물) 아부바카르 세카우(최고 지도자)
- (연계세력) ISIS, 바쿠라그룹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(카노·바우치·보르노·플래토주 등 중·북부), 카메룬 북부, 차드 서부, 니제르 남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對 정부軍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주민 학살
- (참고사항) '15.3 「세카우」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, '16.8 ISIS가 「알 바르나위」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 발생, 이후 「세카우」가 이끄는 보코하람과 「알 바르나위」가 이끄는 「ISIS-西아프리카지부」로 분열